강진군, 중국 용천시와 청자 교류 확대

청자 교류 MOU 체결…청자산업 활성화 등 협력 본격화

"청자산업 활성화 도모·양 국가 상호발전에 동반자 노력"

강진군과 중국 용천시(시장 왕국봉)가 지난 10월 30일, 용천청자박물관(중국 용천시 소재)에서 청자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진군은 지난 10월 30일 중국 용천시와 청자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청자산업 부흥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자매도시 용천시의 대표 축제인 2023년 용천청자보검축제와 제6회 세계 청자 컨퍼런스 참석 등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추진됐다.

강진원 군수, 김보미 군의장, 김경표 강진청자협동조합장 등 9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국 용천시를 방문해, 왕국봉 중국 용천시장과 만나 자매도시 간 우호 교류 증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협의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강진군-용천시 청자 교류 MOU 체결'을 통해, 2018년 이후 중단된 강진군과 중국 용천시 간의 청자 교류를 재개하는데 합의했다. 내년부터 한-중 청자조합 인적 교류, 청자 민간업체 초청 청자 전시판매전 개최 등 민간 부분의 협력을 통해 청자문화 계승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청자를 대표하는 세계적 도시인 강진군와 용천시의 한중 교류를 통해 청자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교류 등을 통한 양 국가의 상호 발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천시장 왕국봉은 "청자의 대표지인 강진군 용천시가 상호 협력해 세계 속에 청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국보급 청자 80%가 출토된 고려청자의 요지로, 상감청자 기술을 보유한 고려청자의 산실이며 강진 대구면 고려청자 요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되어 있다. 용천시는 2009년 세계 최초로 청자 유약 제조기술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 장동면, '유기농 표고농장' 농촌 체험 인기

장흥 장동면 표고농장에서 최근 장평중학교 학생들 30명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영만 부부는 2009년 귀농하여 소나무 숲속에서 유기농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농촌 체험 프로그램은 산양 먹이주기, 젖짜기, 유기농 표고버섯 수확하기 등으로 구성됐다.

체험 활동을 마친 후에는 수확한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다.

한 학생은 "표고버섯을 직접 수확해서 먹을 수 있어 새로운 경험을 하였고, 앞으로도 이런 농촌 체험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수연 장동면장은 "학생들이 농업의 가치 및 중요성을 익히는 기회가 됐길 바라고, 이에 더하여 많은 분들이 농촌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진도군, 제9회 군민한글학교 백일장 개최

진도군이 지난 10월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한글학교 백일장을 개최했다.

군민한글학교는 가정형편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쳐 평생을 까막눈으로 살아온 어르신들을 위해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움의 장이다.

이날 백일장은 어르신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해 무궁화와 가족을 주제로 그동안 갈고 닦은 글솜씨로 배움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됐다.

이번 군민한글학교 백일장에서 대상을 수상한 고군면 지수리의 어르신은 "문해교실을 통해 한글자한글자 알아가며 배움의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전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군, 포근포근 미니 밤호박 가을에도 맛보세요

해남특산물 공중재배 미니 밤호박 2기작 재배로 가을에도 출하

해남군 특산물인 미니 밤호박을 가을에도 맛볼 수 있다.

해남군은 미니 밤호박 2기작 재배를 통해 11월부터 가을철 밤호박을 출하하고 있다.

밤호박은 주로 봄철에 한번만 재배되어 왔으나, 그동안 가을재배가 가능한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의 보급으로 꾸준히 2기작을 확대, 올해는 5ha 면적까지 가을 재배 면적이 늘었다.

2기작 재배를 통해 짧은 기간 동안만 생산되는 밤호박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재배 시설의 유휴기간을 줄여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재배 농가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군은 가을 재배시 수확량이 줄어들고 당도가 낮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품질 재배기술을 보급, 현재는 주당 수량이 4~5개 정도로 증가했고, 품질도 향상되어 재배 농가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가을철 미니밤호박은 11월 출하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해남군에서는 2023년 기준 관내 300여 농가, 80ha에서 밤호박을 재배, 연간 70여억원의 소득을 올리면서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해남에서 생산되는 단호박은 시설하우스와 친환경 그물망 시설을 이용해 공중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흙이 닿지 않아 깨끗하고, 품질이 월등한 것이 특징이다.

밤맛이 나는 포실포실한 식감으로'밤호박'으로 불리며, 전국에서 생산되는 단호박 중에서도 손꼽히는 명품 특산물로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완도군, 해풍 맞고 자란 '새콤달콤 소안 감귤' 수확

완도군 소안도에서 재배되는 노지 감귤이 수확철을 맞았다.

소안도 감귤은 대부분 극조생종을 심어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수확한다.

소안도 감귤은 풍부한 일조량과 청정바다의 해풍을 맞고 자라 평균 당도가 10~11브릭스(Brix) 정도로 당도가 높다.

특히 수확 후 부패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신선도가 좋아 보관 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다.

올해 180톤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안도 감귤은 지난 2009년 작목반이 결성되면서 본격 재배되기 시작했고 현재 62개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다

작목반 모두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GAP) 인증을 획득해 생산부터 판매까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감귤은 대부분 택배를 통해 직거래하거나 소안농협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농산물도매시장 등 판매처를 확대해 가고 있다.

완도=기동취재본부